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 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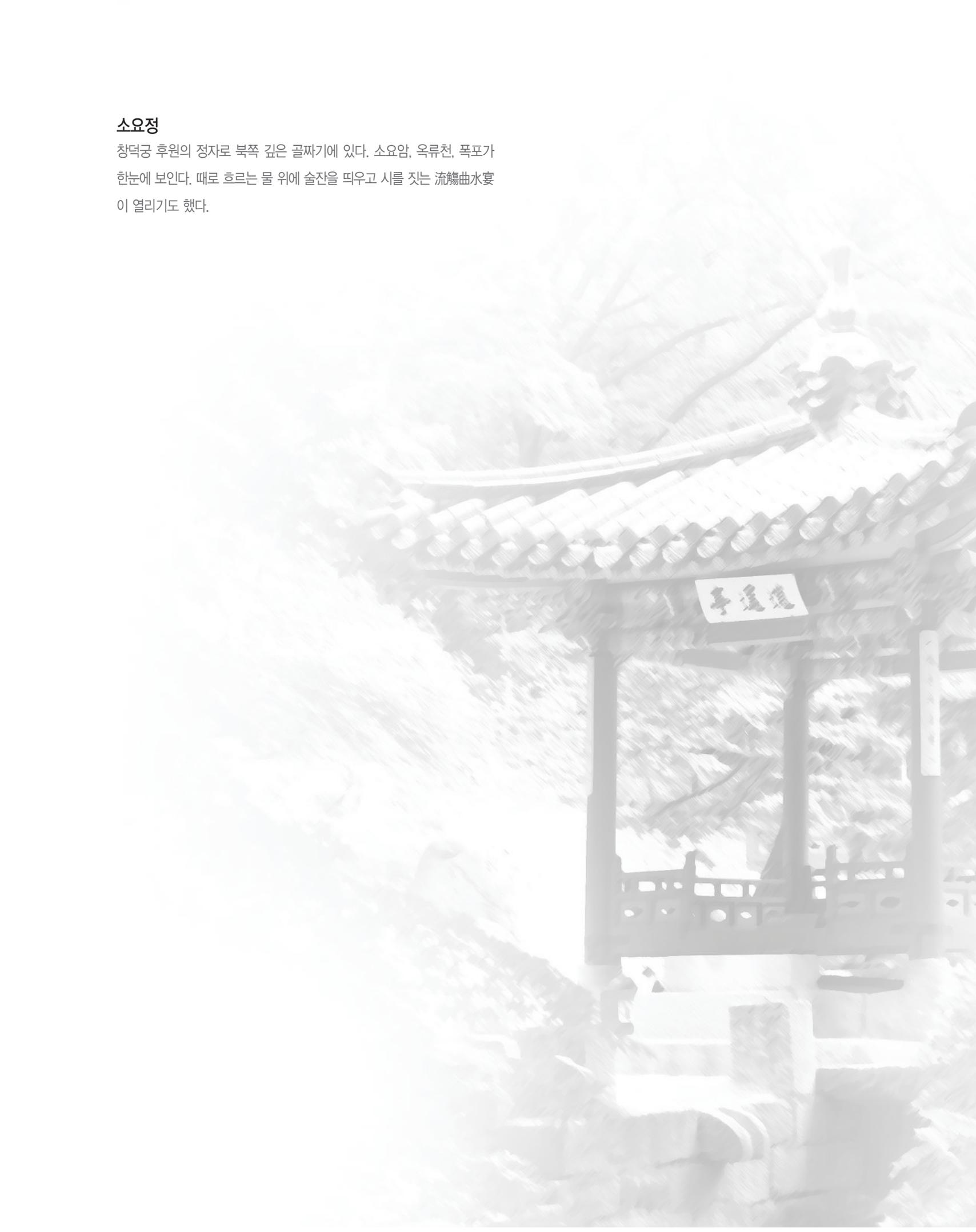
박물관 사랑들

2011년 여름 34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소요정

창덕궁 후원의 정자로 북쪽 깊은 골짜기에 있다. 소요암, 옥류천, 폭포가 한눈에 보인다. 때로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流觴曲水宴이 열리기도 했다.





Contents

기획·정자	4	한국의 정자
	9	자연에 취하다
전시실 산책	13	박물관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다
문화칼럼	16	석굴암 본존
답사기	20	중앙아메리카 기행
회원마당	23	불교조각의 발견
	26	삶의 깊이와 의미를 찾아
학술상	28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
	30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문물
숨은 전시 찾아보기	33	대동여지도
박물관회 소식	34	기부함 설치 및 학술상 수상
	35	국립중앙박물관회는



01

한국의 정자

大宇宙, 中宇宙, 小宇宙라는 말이 있다. 대우주는 대자연, 소우주는 小我, 즉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우주는 대우주와 소우주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집은 대자연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 안에 자신이 놓이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삼았다. 亭子를 짓고 자연과 벗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이때 정자는 자연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이면 당연히 정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樓亭이라는 말이 있다. 누정은 樓와 亭子의 합성어이다. 누는 公的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정자는 私的인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정자는 비교적 규모가 작다.

글 김도경 _ 강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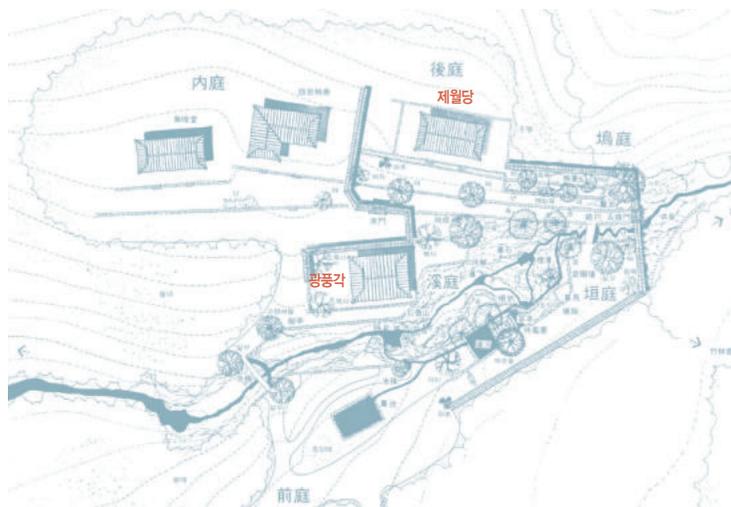
02



03

살아 좋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늘 거주하는 건물은 살아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므로 陽明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살림집이 위치한 주변 환경은 빛이 잘 들어야 하는 반면 습도가 높거나 물에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만큼 살림집의 터전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살아 좋은 집이 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살고 싶은 집도 필요하다. 살고 싶은 집의 대표적인 예가 정자이다. 정자와 같이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건물은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곳으로써 살고 싶은 집이 되어도 좋다.

전남 담양 소재원에 가면 제월당과 광풍각이 있다. 제월당은 소재원의 주인이 잠을 자면서 거주하는 공간이고 광풍각은 자연을 벗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는 공간이다. 제월당은 계곡에서 멀리 떨어진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광풍각은 계곡 바로 옆에 있으며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 여름철 더위를 피함과 동시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제월당은 살아 좋은 집, 광풍각은 살고 싶은 집이 되는 것이다.



04

- 01 안동 체화정
- 02 함양 거연정
- 03 경주 독락당
- 04 소재원 배치 원형 추정도



05



06

터전을 고르는데 제약이 없는 만큼 정자의 위치는 매우 다양하다. 산꼭대기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여 넓게 터진 시야를 확보하기도 하고, 안동의 체화정처럼 산으로 감싸여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기도 한다. 계곡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풍광과 흐르는 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너른 평지를 배경으로 한 전원풍의 경치를 지닌 곳도 있다.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터전에 자리 잡은 정자도 있다. 이처럼 그 위치가 다양한 것은 그것을 지은 사람의 心性과 관련이 깊다. 정자는 지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매우 자유롭게 위치하여 집 주인의 개성을 반영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정자는 자연과 벗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그곳에 앉아 주변의 자연 풍광을 즐긴다. 사람의 시야로 자연의 경치를 끌어 들이는 것을 借景이라 부른다. 차경을 위해서는 주변의 경관과 정자 속에 위치한 사람 사이의 위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자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높이와 건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액자 틀, 그리고 그 틀에 의해서 한정되는 자연 경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자는 이러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어졌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 가릴 것은 가리면서 이상적인 경관을 시야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자연에 약간의 인위적인 가감을 하기도 한다. 많은 기교를 부리지 않은 작은 규모의 건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지어진 정자는 차경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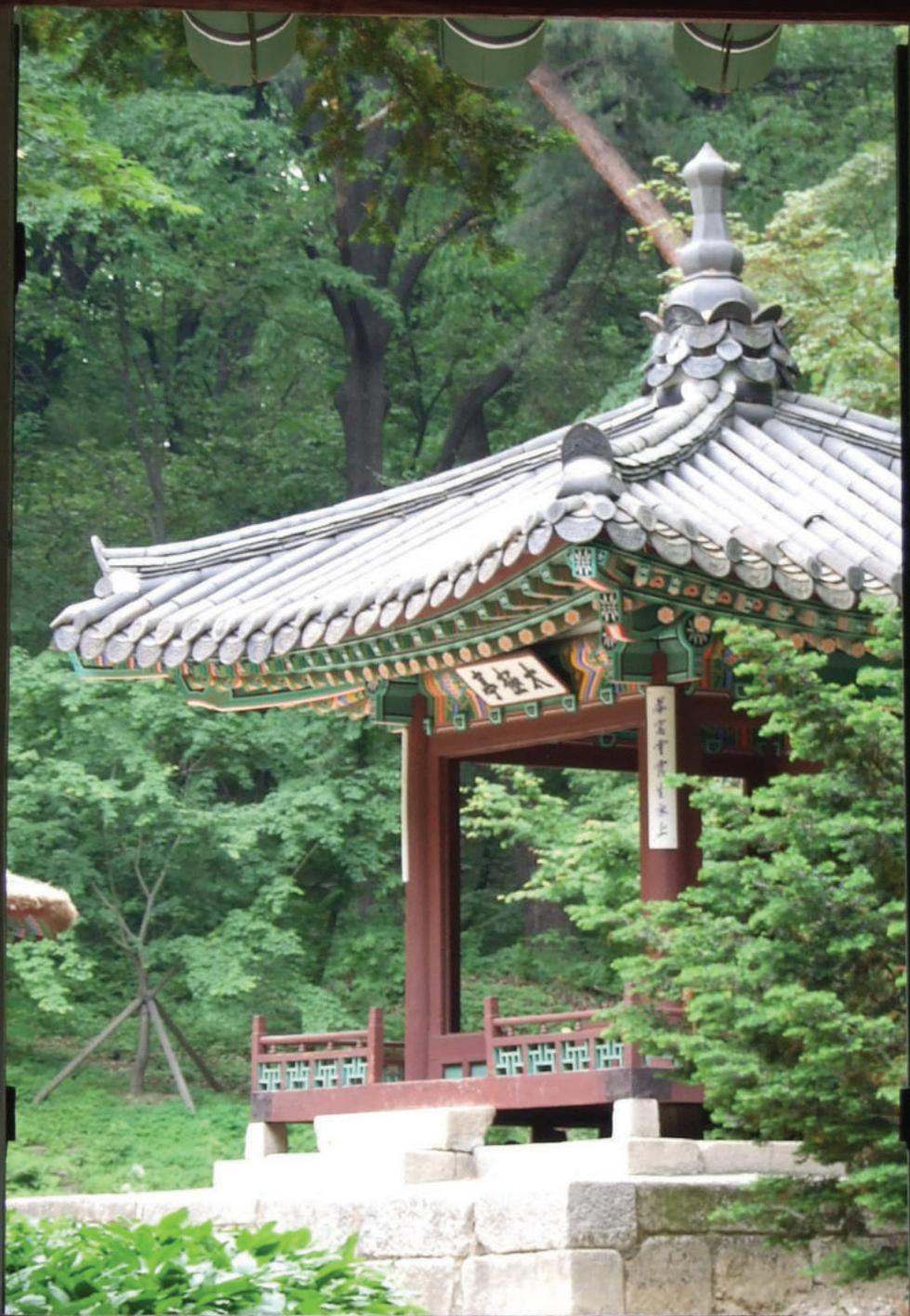
정자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건물이다. 그러나 그 평면은 같은 것이 거의 없다. 한 칸 규모의 단순한 형태부터 여러 칸으로 구성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평면 형태도 정방형과 장방형, 육각형, 팔각형, 7자형 등이 있다. 내부 공간의 구성에서는 내부 전체를 마루로 만든 정자가 있는가 하면 방을 들여 놓은 곳도 있다. 마루와 방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쪽에 방을 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마루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중앙에 방을 두고 그 주변에

- 05 함양 거연정 내부
- 06 합천 호연정
- 07 담양 식영정

마루를 깬 경우도 있다. 창호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 사방이 모두 트이게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 벽을 치고 창호를 달기도 했다. 설치된 창호도 다양하여 평면 구성이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도 모두 다르다. 반듯한 부재만으로 지은 정자가 있는가 하면 흰 부재를 사용한 곳도 있다. 기괴스러운 정도로 흰 부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건축언어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면서 개성이 맘껏 표현된 건축이라는 점에서 정자는 詩와 같은 건축이라 할 수 있다.

— 정자에는 자연을 벗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정자가 지어졌다.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끌어들이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지은 정자를 통해 정자에 앉아있는 사람과 자연은 하나가 된다. 규모는 작지만 입지와 평면,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자는 한정된 언어로 자유롭고 풍부한 개성을 표현한 시와 같은 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주인의 個性과 心性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





창을 통해 보니 은무늬 옷 위에서 피어나고
휘장 걸으니 산천을 거울 속에 들어오네
버들가새벽 누각에 괴고리 소리 들려오고
꽃속의 비 갠 처마 끝에 제비가 날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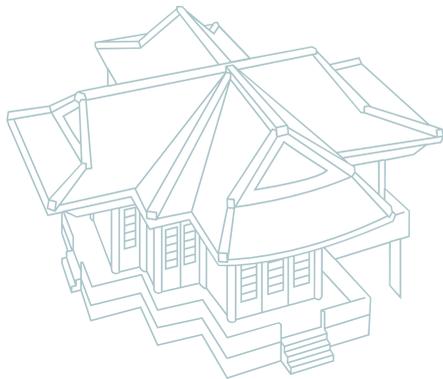
태극정 주련시



01

자연에 취하다

— 창덕궁의 정자



궁궐의 담장을 따라 옛 정원으로 들어간다. 무성한 잎에 가려 있는 하늘은 깊고 푸르다. 창덕궁 후원은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연못을 만들어 자연과 동화 시킨 전통 정원이다. 낮은 아산과 골짜기, 연못가에 자리잡은 그림 같은 정자는 정사에 지친 왕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수령 높은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맑은 기운이 복잡한 도심에 시달린 머리를 식혀준다.

글 정혜리 _ 편집회원

부용정

— ‘활짝 핀 연꽃’이라는 芙蓉池 위에 正祖가 사랑하던 정자, 芙蓉亭이 있다. 부용정은 亞자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남쪽으로 한 칸씩을 더해 多角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이다. 정조가 화성 행궁 후 이곳에 걸터앉아 신하들과 낚시를 했다고 전해진다. 부용정의 白眉는 연못 쪽으로 몸을 내밀어 마치 떠있는 듯한 공간이다. 鷄子난간과 완자창살의 창호 모두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뽐내며 두 다리는 부용지에 담그고 있다. 바닥을 조금 높게 만들어 창호를 들어 올리면, 아름다운 호수와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던 주합루의 웅장함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나머지 공간은 평난간에 네모난 띠창살이지만 기하학적 무늬가 현대미를 물씬 풍긴다. 정조가 규장각의 인재들과 이곳에서 토론을 벌였다고 하니 왕과 신하를 위한 배치가 아니었을까.



02

- 01 부용정
- 02 농수정
- 03 청의정
- 04 존덕정 내부반자
- 05 청의정 내부반자
- 06 존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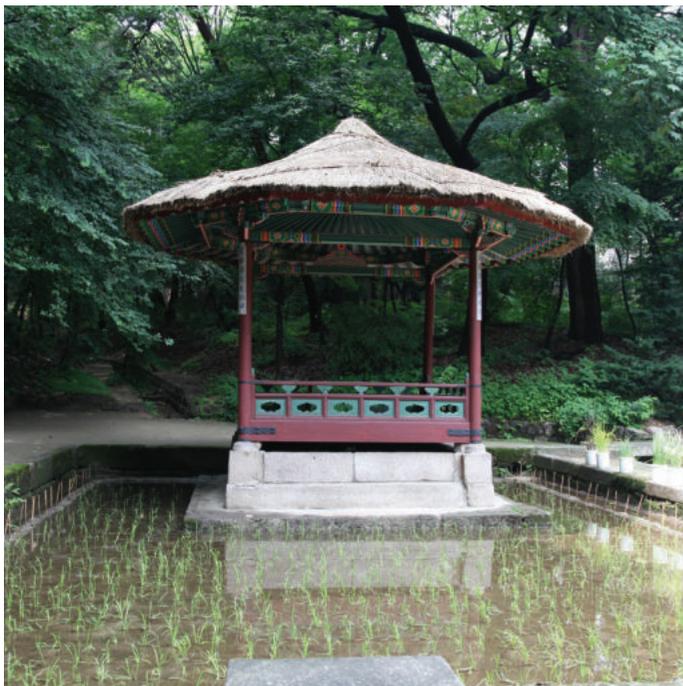
농수정

— 濃繡亭은 사대부집을 모방하여 지은 99칸 연경당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의 서재인 善香齋의 뒤쪽 나지막한 동산 위에 지어졌다.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비단을 펼친 듯 하다' [濃繡]의 뜻에 걸맞게 보일락 말락 녹음에 가려있다. 선향재의 아름다운 花階를 보며 돌계단을 오르면 매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날렵한 모습의 농수정이 보인다. 단청을 하지 않은 白骨집의 단아하고 조촐한 모습이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그 품새가 예사롭지 않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사모지봉의 線이 파란 하늘과 맞물려 감탄을 자아낸다. 나무의 자연스런 결이 돋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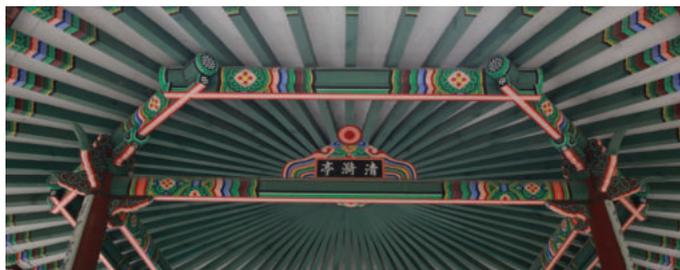
겹쳐마는 막 비상을 앞둔 날개짓의 긴장감이 돈다. 뒤로 담장이 둘러져 있고 앞에는 돌난간이 있어 은은한 품격이 느껴진다. 선향재에서 책을 읽던 왕이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돌계단을 올라 자연의 색에 취해 명상에 잠기지 않았을까. 柱聯에 적힌 시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말해 준다.

五色天書詞絢闌 오색의 임금 조서는 글이 아름답게 빛나고
九重春殿語從容 구중궁궐 봄 전각에는 말씀 조용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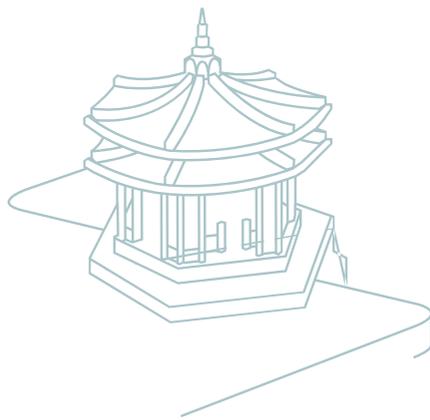
03



04



05



존덕정

부용정에서 정조의 넉넉한 마음씨를 느꼈다면, 尊德亭(1644년)은 서릿발 같은 기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층 지붕 처마 끝에 용 모양의 토수를 끼워 하늘을 향해 기염을 토하며 암막새에도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 내부 반자의 단청은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다. 육각 안에 다시 육각의 반자가 감싸고, 왕권의 위엄을 뜻하는 雙龍圖를 그려 넣었다.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낸다. 북쪽 벽에 정조가 뽀뽀하게 쓴 '萬川明月主人翁自序[세상의 모든 시내는 달을 품고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유일하니, 그 달은 곧 임금인 나이고 시내는 너희 신하들이다. 따라서 시내가 달을 따르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신하들이 추상같은 기개에 놀려 오금이 저렸을 것만 같다.

청의정

소요정에서 옥류천을 건너면 淸漪亭이 있다. 팔각의 지붕을 벗짚으로 덮었다. 청의정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논에서 임금이 직접 농사 지어 초가로 지붕을 올렸다고 한다. 백성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으나 어쩐지 전시 행정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 정도의 농사 일로 백성들의 고단함을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인지 화려한 단청을 덮고 있는 초가지붕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





삼승조망도,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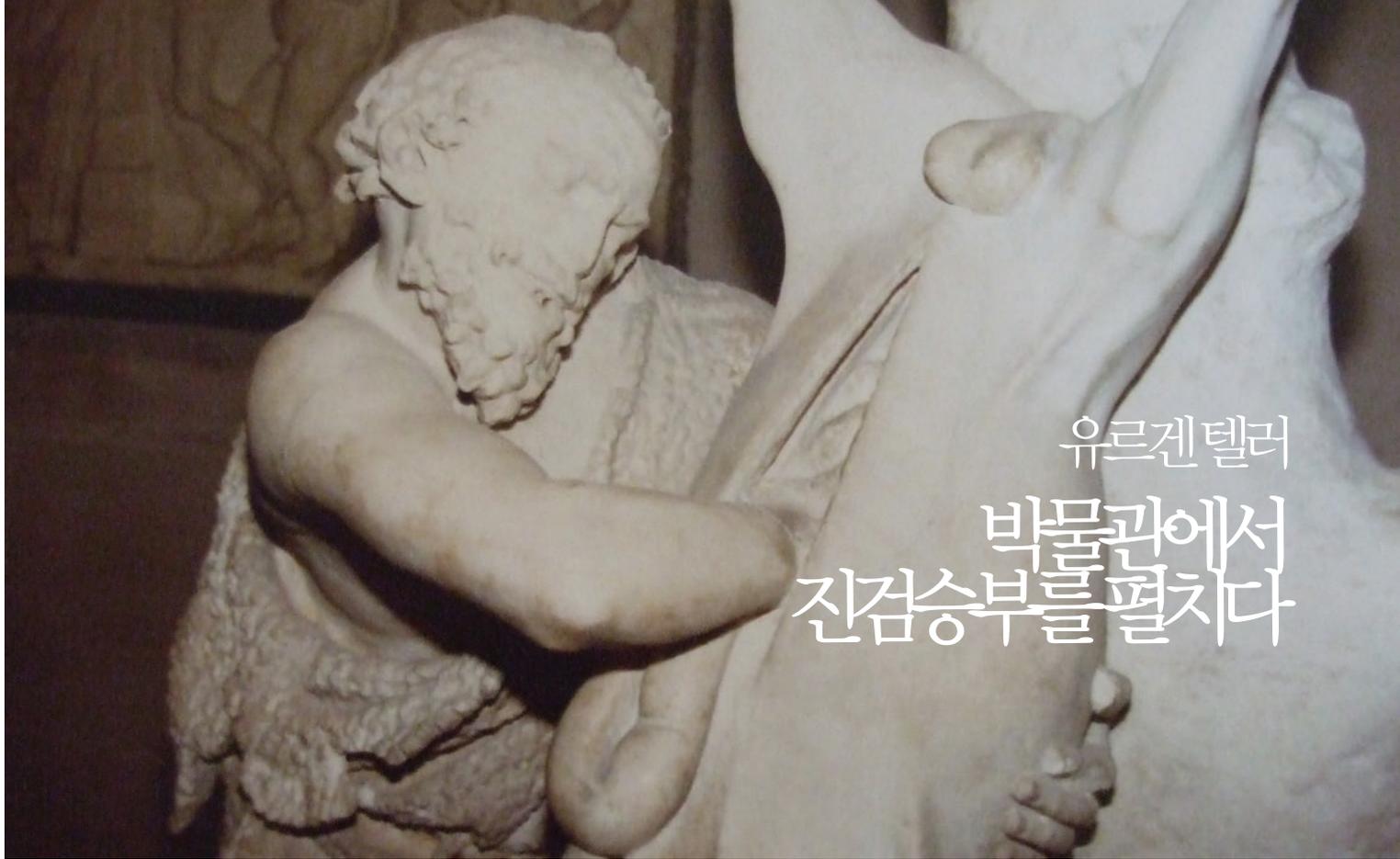
소요정

— 北岳山 동쪽 산줄기에서 흘러내려 작은 시내를 이루는 玉流川 주변에는 몇 개의 정자가 오밀조밀 모여 있다. ‘유유자적 한다’의 逍遙亭은 소요암과 옥류천,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음이 탁 트인다. 주변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꾸밈새가 없고 단출하다. 우리 전통 정원의 자랑인 借景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삼승조망도

— 궁궐과는 달리 그림속의 정자는 소박하다. 이춘제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에 살며 鄭澈과 절친한 사이였다. 정선에게 자기집 후원의 정자인 三勝亭을 그리게 했다. 초가로 지붕을 한 삼승정은 청의 정과 모양새가 닮았다. 삼승정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한양 전경을 내려다본다. 멀리 폐허가 된 경복궁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인다. 복잡한 世上事가 저 아래 있다. 모든 것이 一場春夢 일뿐이다. 담백한 정자의 기둥과 난간 사이로 인왕산 자락의 바람이 돌아 나간다. 선비는 아직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듯,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





유르겐 텔러 박물관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다

글 하영남 _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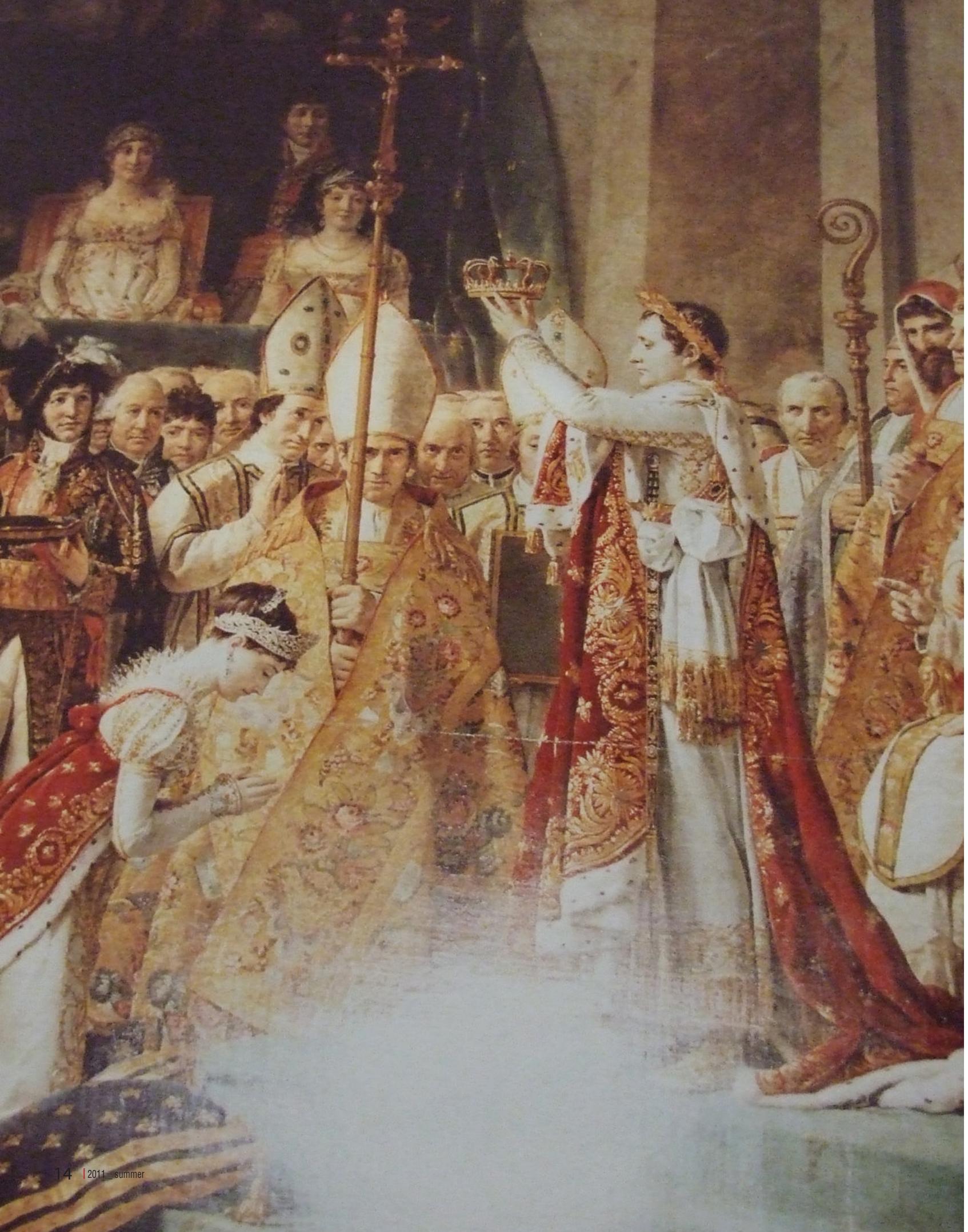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영화가 있다. 그 상상력이 놀라웠다.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장난감 병정이 결투를 한다든지, 동물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 이야기는 많다. 다만 그 잣대를 박물관에 들이댄 것이 뜻밖의 일이었다. 박물관은 장중한 대리석 건물에 높은 천정, 은은한 조명까지,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게 한다. 전시된 유물은 어떤가? 보통 사람은 감히 욕심조차 낼 수 없게 화려하다. 연대는 또 얼마나 까마득한지. 옷깃을 여미고 숨도 크게 쉬지 않고 다만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까. 증조할아버지 앞에 불려나간 손자처럼 말이다. 그 막막한 시간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유르겐 텔러는 독일 출신의 광고사진 작가이다.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사진을 주로 찍었다. 선과 색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이너들의 감각은 늘 첨단을 달린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 중에는 유난히 디자이너들이 많다. 유르겐 텔러는 그 심미안들이 극찬한 사진가이다. 그의 광고는 작품처럼 예술적이고, 예술은 광고처럼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 사진과 상업 사진의 이슬이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데는 그의 독특한 시각이 한몫을 했다. 그는 사물을 마음으로 보고 맨눈으로 찍었다.

— 유르겐 텔러가 루브르 박물관의 초대를 받았다. 전시 도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예술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누드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허락까지 곁들여졌다. 발상만으로도 얼마나 신선한지.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루브르는 그 방대한 규모로 사람을 압도한다. 온 벽을 도배한 명화와 복도까지 잠식한 조각, 길잡이가 없으면 박물관 속에서 미아가 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 중에서 유르겐 텔러는 무엇을 어떻게 본 것일까? 그리고 어디에 누드모델을 세웠을까?

— 첫 작품은 다소 의외이다. 한 남자가 동물을 거꾸로 들고 뱃속의 내장을 꺼내고 있다.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르고도 조각의 전체 모습을 찍지 않았다. 머리는 잘려서 어떤 동물인지 알아 볼 수가 없다. 보통 도록의 사진처럼 명암이 선명하거나 입체적이지도 않다. 그 조각이 바로 우리 옆에 놓인 듯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 효과를 내는 데는 그의 촬영 기법이 한몫을 한다. 그는 특수 조명을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패션 광고 사진이 뻐뻐마른 모델을 세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진 속 모델의 몸을



도러내기까지 하는데 유르젠은 촬영 후 보정작업을 하지 않는다. 눈으로 보듯 촬영했다. 지나치게 도드라져서 현실감을 상실한 일종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물성 자체를 재현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조각품을 똑같이 찍기만 한다면 누가 예술이라 하겠는가? 온갖 보정대신 그는 카메라 렌즈로 작품을 재단했다. 처음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마음으로 읽고 그대로 담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호들갑스럽지 않고 담백하다. 입은 다물었으나 할 말은 많다는 표정이다. 깊은 의중을 헤아리느라 사람들은 오래 그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나도 모르는 몰입이 그의 사진 앞에서 일어나는 이유이다. 이 작품에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남자의 손을 자세히 보라.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것은 유르젠의 작업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겉을 그대로 보이거나 근사하게 포장하는 대신 숨겨진 내면을 표출해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남자의 손짓이 곧 유르젠의 카메라이고 마음의 눈이다. 그리고 무뚝뚝한 그는 한 장의 사진을 톡 던진다.

—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그 자체만으로 한아름 서사를 간직하고 있다. 사실인 듯 하지만 약간 조작된 기록화이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그림처럼 웅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려한 예복을 덧입히고 장소인 노트담 대성당의 실내장식도 바꾸었다고 전해진다. 나폴레옹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출된 것이다. 그 원화에 유르젠은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사진은 과감한 생략이다. 대관식에 참석했으나 제 역할을 못해 시무룩하게 앉아있던 교황은 아예 없다. 참석하지도 않았던 가족이며 귀족 같은 헛가지도 잘라 버렸다. 로마의 황제처럼 월계수관을 쓴 나폴레옹이 조세핀의 머리 위로 왕관을 높이 든 장면만 클로즈업 시켰다. 다른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걸가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현장에 플래시를 터뜨렸다. 마치 잘못 찍은 사진처럼 자신의 속내를 풀어 놓았다. 자화상을 그릴 수 없었던 옛 화가들이 무리 속에 자신의 얼굴을 슬쩍 끼워 넣듯이 플래시에서 반사되는 빛의 흔적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누가 감히 루브르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화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을까? 과감한 생략과 플래시는 유르젠의 해석이고 또한 방점이다. 화려한 색채에 현혹된 관람자들이 명화의 본질을 놓칠까 걱정하는.

— 〈모나리자〉 앞에서 유르젠은 검투사가 되었다. 두 명의 누드모델을 앞세우고 칼을 빼든 것이다. 오른쪽은 완속미를 뽑내는 샬롯 렘플링이라는 배우이고, 왼쪽은 가장 완벽한 몸매비례



를 가졌다는 슈퍼모델인 라켈 짐머만이다. 루브르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줄까? 사실 모나리자 앞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사진 속보다 훨씬 긴 줄기둥이 복도 뒤편으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해서 봐야하나 회의가 들긴 하지만 명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보는 시간은 정말 짧았다. 너무 순식간이어서 신비의 미소를 느낄 여유가 없었다. 스타들처럼 바쁜 스케줄이 명성을 지켜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나리자가 아무리 귀하신 몸이지만 두 명의 누드모델을 당할 수 있을까? 인위적인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 유르젠의 사진 철학이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자연스런 상태는 누드이고,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한가지이다. 명화 속 이상적인 미는 살아있는 진정한 미를 이길 수 없다. 유르젠이 두 모델을 모나리자 앞에 세운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그는 고전미의 대표주자와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싸움에 투입된 병사는 무장해제를 권고 받은 상태이고, 진두지휘하는 장수는 다만 빛으로 말할 뿐이다.

— 내가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발상이다. 기꺼이 논쟁을 허락하는 박물관이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도전장을 던지는 작가나, 선선히 옷을 벗은 모델이 있어 새로운 명품을 탄생시켰다. 예술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꽃핀다. 그들 사이를 떠도는 신선한 바람이 부럽다. 언제쯤 경계에 피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우리는. 🐼

- 01 석굴암 본존, 통일신라 8세기 후반
- 02 마하보리사 불좌상, 팔라시대
- 03 마하보리사 전경(동쪽 방향), 인도 보드가야



01

석굴암 본존

— 경주 토함산에 나투신 마하보리사 정각상

바닷가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온다. 붓다의 가르침은 험준한 산과 구름을 넘어 척박한 사막을 지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끊임없이 전해졌다. 때로는 경전의 형태로, 때로는 불교 미술로 ...



02

글 배재호 _ 용인대학교 교수

『삼국유사』義湘傳敎는 신라 승려 의상이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붓다의 법을 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알듯이, 의상은 원효와 함께 당에 유학하러 가던 길에 고구려 국경에서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왔다. 의상은 당 유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660년에 당에 도착한다. 의상이 험난한 길을 무릅쓰고 굳이 당까지 가고자 했던 것은 玄奘이 인도에서 배워 온 唯識學을 공부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가 당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60여세로, 그의 불교적인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았다. 의상은 終南山 至相寺의 화엄 승려 智儼을 곧바로 찾아간다. 때는 측천무후가 황후가 되어 도교 일색이던 당 황실에 불교의 영향이 점차 미치기 시작할 무렵이다. 당 건국 초기에 도교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불교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다. 655년 불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측천무후가 高宗의 황후가 되면서 불교는 점차 당 황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한 것이 지엄의 화엄사상이다. 『大方廣佛華嚴經』에 기초한 화엄사상은 불교 경전 중에서 최고로 간주된다. 크고[大], 반듯하고[方], 넓은[廣] 도량을 갖춘, 그리고 화려하게 장엄한[華嚴] 막 깨달은 붓다에 대해 서술한 경전이다. 즉 석가모니붓다는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루어 붓다가 된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결가부좌한 채 움직이지 않고 14일간 삼매 속에 들어간다. 이 삼매 속에서 붓다의 참 모습을 내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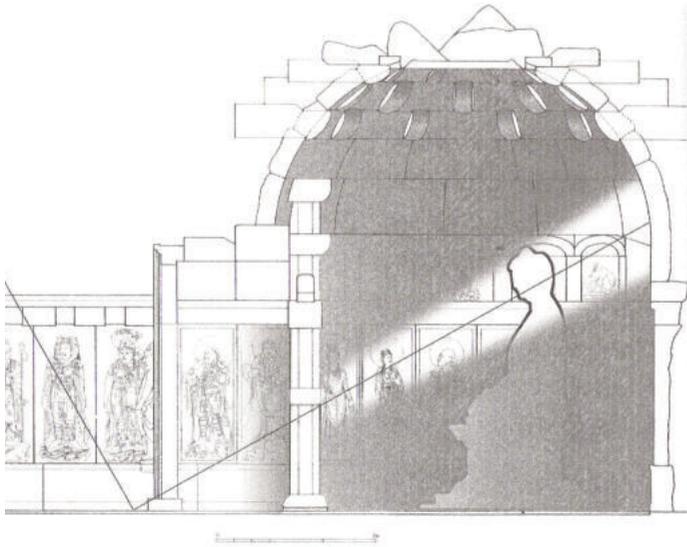
현장은 인도 여행 중에 석가모니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摩訶菩提寺(대각사)를 직접 방문하고, 正覺像에 예불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당서역기』에 실려 있다. 당시 인도를 여행하는 求法僧들이 반드시 들러서 예불하고자 했던 것이 마하보리사의 정각상이었다. 현장은 이 책에 언급된 여러 불상 중에서 정각상의 크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만큼 정각상에 대하여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사실은 현장이 기록한 마하보리사 정각상의 크기와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의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편단우견의 착의법과 항마촉지인의 수인, 결가부좌한 자세도 같다.



03

마하보리사 정각상의 영험함에 대한 소문은 인도를 다녀온 구법승과 인도에서 온 傳法僧을 통하여 당과 신라로 전해졌다. 정각상의 영험함은 석가모니붓다의 깨달은 모습을 재현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정각상에 대한 흥미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당의 사신이었던 王玄策은 7세기 중반에 이곳을 4번이나 방문하였고, 같이 동행했던 화가 宋法智에게 그 모습을 베껴 그리게 하였다. 송법지가 그려왔던 마하보리사 정각상의 그림은 장안으로 전해져 많은 화가들에 의해 다시 모사되어 유행하였다.

당의 수도 장안과 낙양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의상은 바로 그 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즉 현장이 중시했던 미륵사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지엄의 화엄사상이 새롭게 부상하는가 하면, 인도로부터 전해진 마하보리사 정각상이 최고의 예배 대상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상이 당에서 유학하던 10년간 지속되었다.



04

마하보리사의 정각상은 현장 등 구법승들에 의해 당으로 전해져 처음 유행할 때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석가모니붓다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이 무렵 화엄사상이 교학적으로 발전하면서 예배 대상으로서 마하보리사의 정각상이 채택된다. 즉 정각상은 석가모니붓다의 깨달은 순간의 모습이며, 붓다는 이 모습을 유지한 채 14일 동안 삼매 속에서 깨달은 붓다의 모습을 내 보였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단순히 흠모의 대상이었던 마하보리사의 정각상은 화엄이 당 불교계의 중심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재해석되어, 드디어 화엄의 주존으로 자리잡게 된다. 의상과 사형제였던 법장은 측천 무후의 후원을 받아 화엄이 7세기 후반 당의 불교계를 주도하는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무후의 후원 속에서 그가 주도했다고 추정되는 용문석굴 擂鼓臺洞에는 마하보리사 정각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된 항마촉지인 불좌상이 여러 존 남아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불상 모습이 아닌 인도적인 상호에 넓은 어깨와 잘룩한 허리, 화려한 장엄 등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마하보리사 정각상 바로 그 불상이다.

의상은 670년경에 당으로부터 신라로 돌아온다. 알다시피, 그는 676년에 浮石寺를 조성하였다.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항마촉지인의 소조불이 봉안되어 있다. 비록 이 불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지만, 의상이 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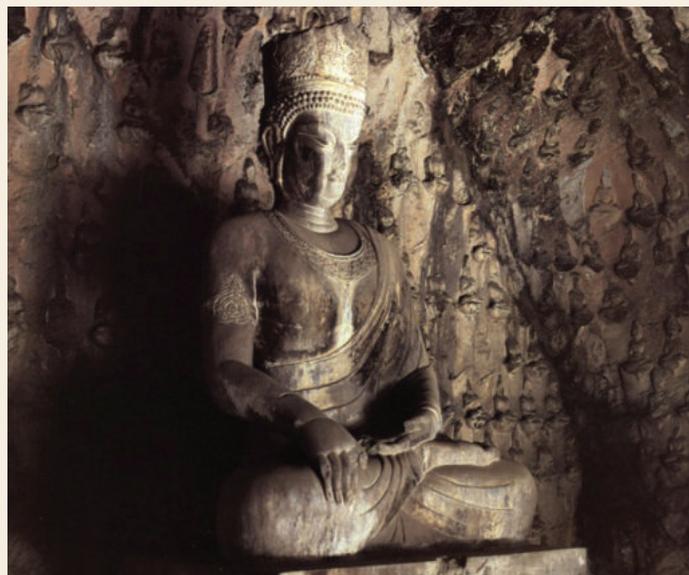


05

사를 창건할 당시의 불상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의상은 이미 당나라 유학 중에 항마촉지인 불좌상의 도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예불되었는지를 익히 경험하였다. 당의 화엄 승려들이 마하보리사 정각상을 『대방광불화엄경』의 주존으로 인식하였듯이 그도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의상은 부석사의 창건 등 많은 佛事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表訓은 단연 최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표훈은 바로 석굴암을 조성했던 김대성에게 화엄사상을 가르친 스승이자, 석굴암이 완성된 후 그곳에 주석했던 초대 주지였다. 물론 표훈의 화엄사상은 의상에게 배운 것이고, 김대성에게 가르쳤던 화엄 삼매는 깨달은 순간의 석가모니붓다와 관련된다. 왜 석굴암 본존이 마하보리사 정각상과 모습 뿐만 아니라 크기마저 같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다. 국가적인 불사였던 불국사와 석굴암을 김대성이 주도했을 때, 의상으로부터 화엄사상의 맥을 이은 표훈의 영향력은 당연한 것이었다.

석굴암 본존은 마하보리사 정각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용문석굴의 항마촉지인 불좌상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신라 사람들이 정각상을 재해석한 결과이다. 그저 당의 화가 송법지와 같이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화엄사상을 신라적으로 재해석하여 40존의 불교 존상을 원용과 조화로서 녹여 낸 것이다. 신라적인 해석은 석굴암의 입지 선정에서부터 인도의 마

- 04 석굴암 조명 방법
- 05 석굴암(12월 8일경)
- 06 용문석굴 뉘고대남동 주존, 당 7세기말



06

하보리사나 당의 용문석굴과는 차이가 있다.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토함산 정상 부분을 선택하였고, 석가모니붓다가 깨달았던 12월 8일경에 일출 방향이 정동향이 되는 방위에 석굴암을 두었다. 석가모니붓다는 12월 8일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으며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신라 사람들은 그것을 토함산에서 재현한 것이다.

알다시피 경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남산도, 낭산도, 소금강산도 아닌 토함산을 왜 선택한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신라와 일본 奈良 정부와의 국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 정부에서는 신라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라 정벌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나라 정부는 752년에 東大寺 대불의 開眼式을 국가적인 규모로 행한다. 경덕왕의 양자였던 金泰廉도 개안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가지만, 방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 정부는 그의 개안식 참석을 거부한다. 결국 두달이 지난 뒤에야 김태염은 도다이지 대불을 실견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경덕왕에게 보고한다. 불국사 서석탑(석가탑)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重修記에 의하면, 불국사는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기록한 751년부터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742년경에 세워졌다. 아무리 국가적 후원 속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런 불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석굴암은 김태염이 도다이

지 대불을 보고 돌아온 후에 나라 정부의 신라 정벌에 대응하여 불교의 힘을 빌어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를 담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함산이 왜구가 신라를 노략질 할 때 접근하는 길목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산의 정상에 석굴암을 조성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석굴암은 나라 정부의 신라정벌론에 자극을 받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상적인 시원이 인도에 있고, 당시 신라에서 유행했던 唐風의 사조에 맞춰 용문석굴의 영향 속에서 신라적으로 재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마하보리사 정각상이라는 파도가 낙양으로 밀려와 용문석굴의 향마촉지인 불좌상의 유행을 가져왔고, 이것이 다시 경주까지 그 영향을 미쳐 향마촉지인 불좌상인 석굴암 본존이 만들어진 것이다. 🐼

01 프리다 칼로 기념관 벽면

02 과테말라 티칼



중남아메리카기행

01

글 김호기 _ 회원

2011. 2. 18. 맑음

오늘은 멕시코시티 안의 일정이라 꼭두새벽부터 서두르는 일은 없다. 그래도 body clock 은 일정에 적응해 줄 리 없어 호텔 아침식사 시간을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는다. 일찍 일어나 일기도 쓰고 침대 위에서 내외끼리 노닥대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친지 친척들 얘기를 나누게 된다. 마야문명 답사여행 중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인가. 가 신지 이제 오래되었지만 모락모락 그리움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든다. 지금 어디에 계실 까 하는 생각은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이, 마야인들이 한 생각과 같을 것이다. 웅려한 마 야 유적을 돌아보면서 영원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모든 인간역사의 위대한 이름의 원동 력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리다 칼로 기념관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21세 연상인 디에고 리베라와 22세에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간 Casa Azul에는 부부의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식당, 침실, 거실 등 살다간 흔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6세에 소아마비를 앓고 16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결혼 후에는 변덕쟁이, 바람쟁이 화가 남편과 사느라 고초의 생을 살면 서도 자신의 예술과 남편과의 사랑 속에 독자적 미술세계를 이룬 삶에서 감명을 받았다. 그녀가 한 말들이 방마다 벽에 써 있어 베껴온 노트를 식당에 두고 온 것이 참 아쉽지만 몇개는 대강 생각이 난다. 오른쪽 발 절단 수술을 받았을 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 고 '발이 무슨 소용? 날개가 있는데...' 라고 의연해 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

람들이 언제 내가 리베라와 사는 고통을 호 소할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강물이 넘친다 고 아파할 강변이 세상에 어디 있나?' 라며 리베라와의 예술적 공명을 더 중시했다. 과 연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여성화가다운 말들 로 들렸다. 전시작품 중 2점의 리베라 작품 은 마치 조르주 브라크 작품같은 입체주의 성격이 강했는데 파리생활 중 파카소나 브 라크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부는 마야문명의 흐름도 이으면서 독자적 작품세계를 창조해 나갔다.

2011. 2. 20. 맑음

과테말라시티 북방 550Km 떨어져있는 티 칼의 유적을 하루에 답사하려면 비행기 타



고 갔다와야하기 때문에 늦잠도 안되고 조찬도 Bag런치를 탑승수속 하면서 병정들 식사하듯 허겁지겁 먹어야 한다.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었다. 티칼의 마야 유적은 오랜 세월동안 정글에 묻혔던 것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Tropical Rain Forest 안을 거니는 그 싱그러운 기분이 좋았다. 과테말라에서 한시간 날라서 Flores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던 미니버스에 올라 한시간쯤 숲속의 길을 달려 티칼유적에 도착해도 아직 오전 10시가 안되었다. 수십년을 이곳 안내를 했다는 카를로의 설명도 멕시코에서 들은 바와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알쏭달쏭한 것도 자주자주 있다. 선·후고전기부터 서반아인들의 도래를 거쳐 현대까지의 큰 역사의 줄기는 벌써 여러번 듣는데 관련안내서에서 읽은 것이지만 현장에서 들으니 실감나게 기억할 수 있다. 어느 곳에 가도 신전 피라미드, 광장, 천문대들이 들어선 것도 같고 각 건축물의 용도나 의미도 비슷한 것이다.

2011. 2. 21. 맑음

펠레케, 치첸잇싸와 함께 정삼각형을 이루며 마야문명의 최고 최대의 유적지로 알려진 코판을 하루 만에 둘러보려면 또 새벽같이 부산을 떨어야만 한다. 과테말라시티에서 서북으로 380km를 오가는데 버스여행에 10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해발 일천오백미터 고지인 과테말라시티에서도 험준한 산을 넘어 저지대인 온두라스로 내려오면 열대식물도 많아지고 기후도 따뜻해진다. 국경도시인 El Florido는 문자 그대로 꽃이 피고 아담한데다 코판 유적지는 국경에서 불과 1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숲속에 파묻혔던 이 유적은 1576년 3월 8일 디에고 가르시아 드 팔라시오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19세기부터 미국인들이 복원을 개시해서 지금까지도 복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팔라시오스에 의해 발견되기 육백년 전에 사라진 이곳에는 사방 40km에 이르는 마야왕국이 번성했으며 지난 백년간 사천 팔백점의 주요문화재가 발굴되었고 앞으로

도 백년은 발굴할 것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밀림 속에 보이는 하늘을 찌르는 Ceiba 나무가 보인다. 뿌리가 기묘하게 몇 갈래 벽을 이루며 땅속을 들락날락하고, 나무는 거대한 기둥처럼 하늘을 찌르듯 똑바로 올라가고, 저 높은데서 굽은 가지를 치고 무성한 잎이 달려있다. 마야인들은 이 나무도 신성히 여겨 천·지·지하세계로 구분하는 상징으로 보아 그들의 신전설계에도 참고했다고 한다. 카카오 나무의 씨는 마야인들이 화폐로 사용했다는데 이것으로 초콜릿 음료를 만들어 이사벨라 여왕의 신경 쇠약을 치료했다고 한다. 연일 강행군한 10박 11일의 마야 문명답사가 무사히 끝난 것에 안도가 되었는지 별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누가 날더러 고희 노인이라 할 것인가. 다만 '從心所欲不踰矩' 하는 '늙은 오빠'가 될 뿐이다.

2011. 2. 22 맑음

귀국길에 LA에 들러 박물관 투어를 하기 위해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모닝콜, 4시



03



04

반에 공항행을 했다. 게티센터는 LA 시내, 할리우드와 태평양이 시원히 내려다보이는 산타모니카산 중턱에 세워져 있어 트램카를 타고 올라가 아름다운 건물과 정원 주위를 거니는 것만 해도 가보는 보람이 있다. Richard Me가 설계한 건축물들이 고전적이면서도 현대 감각이 짙어서 인상적이거나, 16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수많은 회화, 조각, 가구 장식품 등 시간이 모자라 한번 훑어가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 것은 유감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센터를 LA 같이 메달랐던 동네에 세운 게티는 멋진 부자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입장 무료, 환경친화의 원칙을 제시했던 게티의 생각도 참 훌륭한 것이었다.

03 과테말라 티칼
04 온두라스 코판

2011. 2. 23. 맑음

열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一彈之頃에 스쳐간 것 같다. 마야 문명의 발자취에 흠뻑 빠졌던 것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 우리 안이 그만큼 살찐 것을 느낀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이별에 익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다짐한다. 내가 너무 정에 약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니... 지구 저쪽에서 위대한 문화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



박물관회에서는 2011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 지역을 답사하였다. 이 글은 답사에 참여한 회원의 육필 일기에서 발췌하였다.



01

불교조각의 발견

한동안 달항아리에 정신을 홀렸었다. 도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강의가 워낙 재미있었던 탓이다. 강의를 듣고 나면 선생님과 똑같이 느껴보기 위해 도자기 전시된 방을 들락거렸다. 선생님의 한 마디에 수백년 묵은 흙이 숨을 쉬고 순백의 달항아리가 이야기를 걸어왔다. 도자실에는 견학 온 학생들이 늘 많았다. 나는 어린 학생들 틈에서 달항아리를 보고 한적한 옆방으로 가 쉬었다. 불교조각실엔 다행히 단체관람객이 많지 않았다.

글 김국 _ 회원

나는 석굴암의 부처님에게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문외한이라 고려시대 철불이니 통일신라시대 석불이니 하는 것들에 티끌만한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다리춤을 하기 위해 불교조각실을 드나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까지는 눈을 홑뜨고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주 조금씩 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눈이 트이면 마음이 움직인다.

맨 처음에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반가사유상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반가사유상이 왜 그리 유명한지를 도통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반가사유상과 눈맞춤을 하는 횃수가 늘어나면서 나는 곧 그 매력에 빠져 들었다. 뼈와 근육이 빠져나간 듯 매끄러운 팔과 손, 둥근 어깨. 가늘게 뚫은 힘줄 하나 없는 데도 손으로 누르면 곧바로 튕겨져 나올 듯이 탱탱한 탄력. 반가사유상에는 이 부조리한 느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깊은 생각에 잠겨 가웃 숙여진 머리와 긴장한 목덜미로부터 살짝 휘어져 흘러내린 허리, 군살 한 점 없이 단단한 등판까지 눈에 선 곳이 하나도 없다. 금방이라도 다리 아래로 쏟아져 내릴 것같이 치렁하게 늘어진 옷자락의 조합은 또 얼마나 색시한지. 나는 그가 미륵보살이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반가사유상 다음으로 내 마음을 잡아 흔든 것은 통일신라시대 석불이었다. 경주 감산사 터에서 옮겨온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상이다. 작은 키에 살이 오른 얼굴, 수북하게 부은 눈두덩, 두툼한 입술의 두 석불은 서로 닮은 얼굴로 늙어가는 다정한 부부같이 보였다.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눈을 내려감은 채 슬며시 웃고 있는 미륵보살은 다정한 어머니이고, 넉넉한 몸집에 넓적한 얼굴을 한 아미타불은 든직한 아버지같이 보였다. 박물관의 설명에는 '719년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감산사를 짓고, 미륵보살과 아미타여래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김지성은 석수장이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일러준 게 아니었을까. 두 석불의 얼굴은 편안하고도 행복해 보였다. 허허거리며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얼굴 가득 기쁨이 배어 있었다. 짐짓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의 넉넉한 살피들을 얇은 법의의 주름이 감싸고 흐른다. 아미타불의 튼실한 두 다리를 받치고 있는 발등은 두꺼비라도 올라앉은 모양으로 수북했다. 그 크고 넓적한 발은 이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

02



고 가족을 지켜내는 아버지 같다. 그런데 수북하게 솟은 발등을 보는 순간 저절로 내 손이 내밀어졌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충동이었다. 차마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지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수북한 발등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돌의 느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의 경험이었으나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잊히지 않았다. 거칠거칠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게다가 따뜻하기까지 한 돌의 느낌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손과 마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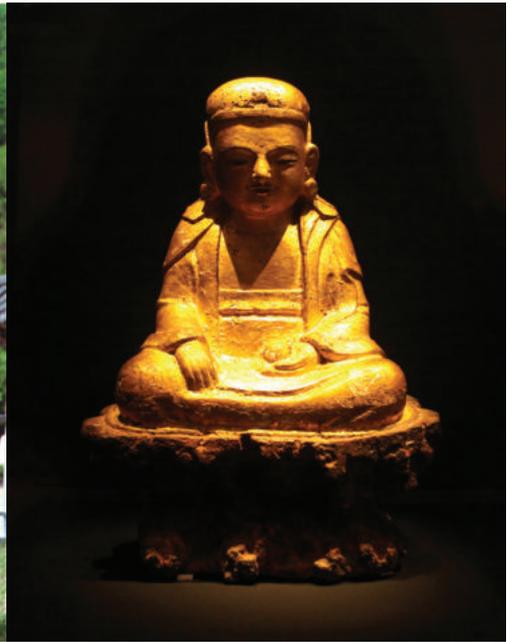
일곱 살의 여름에 나는 월정사에 있었다. 그 무렵 월정사는 625때 가람이 모두 불타 판자로 지은 작은 집 두 채 뿐이었다. 영동고속도로가 나기 전이라 오대산 깊은 산속엔 드나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일곱 살짜리에게 절은 너무나 심심했다. 정갈하게 비질이 된 마당에서 돌맹이로 비석치기를 하고 사방놀이 금을 굶고 혼자 깡깡이를 뛰다가 스님들 울력하는 감자밭에도 가보았다. 철철 소리 내어 흐르는 금강연에 내려가 물장난도 쳐봤지만 하루 해는 길기만 했다. 절 마당 한가운데 뒷산보다 더 높은 탑이 있었고 탑 아래엔 두 손을 모은 보살상이 있었다. "이 탑은 아주 귀한 보물이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탑보다 보살상이 좋았다. 틈만 나면 보살상의 웃는 얼굴을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어루만졌다. 보살상은 분명 돌인데도 흠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보살상의 둥근 어깨도 만지고 관을 쓴 머리도 쓰다듬었다. 한낮의 햇빛에 달궈진 보살상은 엄마처럼 따뜻했다. 집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둘째 동생을 낳고 몸이 많이 아팠다.

03





04



05

반가사유상이 불상이 아닌 듯 느껴지고 감산사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상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같이 보이면서 비로소 나는 불교조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불상, 코가 뭉개진 불상, 함죽이처럼 웃는 불상 등과 친해지자 석가모니 부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불교와 부처의 여러 이름들, 복잡한 수인을 몰라도 얼마든지 불상과 친해질 수 있었다. 3층의 맨 끝방, 불교조각실을 일부러 찾아가 철불 옆의 나무의자에 앉아있는 날들이 늘어났다. 전시실 밖으로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지고, 또다시 새 잎이 나도록 나는 그 자리를 서성였다.

사랑은 변하는 거라더니 반가사유상을 지나 통일신라 석불에 끌리던 내 마음은 요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나의 새로운 사랑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장보살상이다. 머리를 수그리고 보주를 든 채 선정에 든 지장보살의 모습이 볼수록 친진하다. 선정에 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곧 으허허 웃으며 고개를 번쩍 들 것만 같다. 투실한 등이 구들장처럼 넓고, 두루뭉술한 허리 아래로 엉덩이가 불룩한 게 우리 아줌마들 같아 절로 웃음이 난다. 요즘 나는 불교조각실을 들고날 때마다 지장보살의 투실한 살을 만져보고 싶어 안달이 난다. 🐼

- 01 불교조각실 전경
- 02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국보 제 81호
- 03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국보 제 82호
- 04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 139호
- 05 석조지장보살좌상, 보물 제 1327호



삶의 깊이와 의미를 찾아

박물관 특설강좌를 들으면서 리포트가 있다는 부담감이 거의 1년을 따라다녔다. 그 부담에 공부도 안하면서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박물관을 둘러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보지 않던 분야의 책을 잔뜩 빌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개략적이던 수업내용을 다시 공부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을 보면 볼수록 나의 무지가 더 드러나 어떤 말로도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공부한다고 생각말자. 그냥 느끼는 것이다. 비전공자로서 인생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잠시 쉬었다 가는 심포리 박물관에 들렀다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리포트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무언가 한 분야를 연구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박물관을 오가며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그림을 보며 가졌던 감동들을 정리하며 한 줄 글로 남기기로 했다.

글 최성주 _ 회원

_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인문분야의 강의를 들었다. 더욱이 전공이 자연과학이라 학부 1학년 이후로 이런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 매우 낯설었다. 예전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만이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날이 갈수록 인생을 논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생각과 사상에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강좌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에 활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인류와 문화' 강의를 듣는 순간 이 강좌가 단지

화려한 일상의 외출에 그치지 않음을 예감했다. 삶의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얽혀있으며 단지 DNA로만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기에 갖는 동일성과 또한 사람이기에 같을 수 없는 상대성이론은 4시간을 듣고도 부족한 목마름을 내게 남겼다.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학 등 내게는 매우 낯설고 무관했던 분야들이 실제로 나와 매우 가깝게 늘 옆에 있었던 물음들이었다.

—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강사의 말은 모든 강좌를 들을 때마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구절이었고 어떤 강좌에 적용해도 들어맞았다. 그랬다. 사람은 다 같았다. 모두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생활양식을 만들었고 또한 문화를 만들었다. 남아있는 집터에서, 무덤 속과 돌무더기에서, 깨어진 도자기 파편에서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무덤은 다 같은 모양이 아니었고, 돌무더기 또한 같은 돌은 아니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무늬와 재료가 보였고 다른 생각들이 보였다. 그래서 민족이 생겨났고 나라가 생겼나보다.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을 보며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유이고 또한 일본과의 묘한 신경전에 마음 쓰게 되는 이유인 듯하다. 그렇게 옛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배워갔다.

— 정선의 금강산전도와 김홍도의 달이 걸린 풍경화를 보며 가슴이 멎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급기야 리움 미술관에서 하는 김홍도 전시회까지 남편을 졸라 가기에 이르렀다. 그냥 예전엔 스쳐지나갔던 그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김홍도가 느꼈을 멋진 풍광과 그 달의 외로움을 나도 함께 하는 듯 했다. ‘석조미술’ 강사가 어렸을 적 수천 번도 더 보며 느꼈다는 석탑의 당당함과 외로움이 나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너무 오만일까? 돌에 대한 열정으로 차가운 돌마저 온기를 느끼게 하는 강의였다. 그저 여기저기 뒹구는, 너무 흔해서 보이지 않던 돌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강사의 한마디는 가끔 오르는 절에 있는 작은 돌담에서도 옛사람의 손때를 보게 해주었다. 박물관에서 사람을 느꼈다. 옛날 이 땅에 살았던 나와 똑같은 사람, 함께 숨 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나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보았다. 이제는 주위의 지인들에게 마구 문자를 날린다. ‘오늘 박물관으로 금관 보러가자’, ‘고려불화 보러가자’ 등등...

— 지난 가을 친구와 함께 본 수월관음도는 꽤저 중에 하나였다. 김홍도의 풍광이후 나를 멎게 했던 두 번째 작품이었다. 투명함!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한, 알듯 말듯한 그 신비함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의 묘한 미소는 또한 무엇인가? 처음 봤을 때 묘한 관능미를 느끼게 하던 그 미소는 자꾸 보면서 알 수 없는 신비감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렇게 투명한 신비감은 나를 가을 내내 박물관으로 이끌었다. 학기를 끝내고 수료식장을 나서며, 가볍게 시작한 박물관으로의 외출이 청춘일 때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의미를 찾게 해주는 시작임을 느꼈다.

“여보, 이번 주말 영화보지 말고 청자 전시회 어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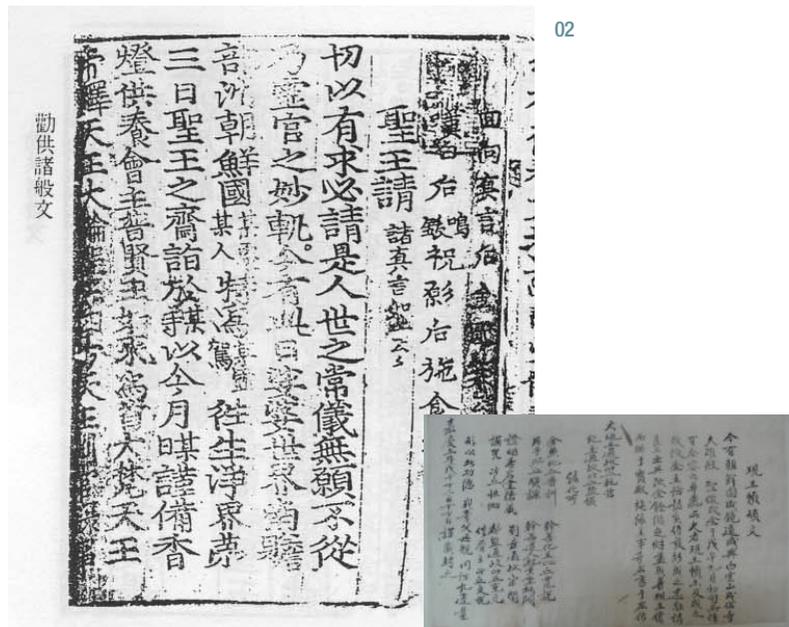


봉안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불사 현왕도>를 중심으로

글 정명희 _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現王圖는 지옥의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을 그린 불화로, 현왕을 '普現王如來'로 신앙한 데서 유래한다. 현왕도는 불교회화의 영역 중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테마 중 하나이다. 시왕도가 지옥 왕의 심판과 형벌을 도해한 것에 비해 현왕도에는 염라대왕만을 그린다. 현왕을 보필하는 권속이 있어서도 시왕도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도해되며 지옥 장면은 표현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왕도는 사찰의 주 전각에 걸린다는 점에서 봉안 공간의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주제의 불화일지라도 봉안 공간에 따라 다른 신앙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현왕도가 시왕 중 하나인 염라대왕을 그렸으며 사후의 내세관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룸에도 도상화된 내용과 봉안처의 차이가 나타난 데서 두 불화가 다른 신앙 맥락에서 기능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Ⅱ장에서는 불교의식집을 통해 현왕에 대한 예경과 권공 의식이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현왕도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학계나 전시를 통해 소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불화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불사 현왕도>를 대상으로 조선 후기 현왕신앙의 수용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후 현왕도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



01 <성불사 현왕도>, 견본채색, 조선 1798년, 국립중앙박물관
 02 「권공제반문」 성왕청, 1574년
 03 「현왕탱원문」, 36×22.2cm, 국립중앙박물관

었다. <성불사 현왕도>(신14138)는 1997년 구입을 통해 입수된 불화로, 화기에는 1798년 12월에 白雲山 佛地庵에서 조성하여 ‘본사 대웅전’에 옮겨 봉안했다는 점만 기입하여 소장 사찰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왕탱발원문」, 「白雲山成佛寺還建舊基序」 등의 문헌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지역인 함경도 함흥 성불사 대웅전이 원 소장처임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경로로 박물관에 입수되었던 <제석신중도>(신14115) 역시 성불사 대웅전에 함께 봉안되었던 불화임을 확인하였다.

본 불화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던 중 상축 홈에서 복장물과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불화의 상축 네 곳에 파인 방형 홈에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었다. 입체적인 불상의 경우 복장물은 불상의 저부나 등부에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불화의 복장은 방형의 후령통을 만들어 불화의 뒷면이나 정면에 걸어둔다. 불보살의 조상법과 복장 절차를 수록한 『造像經』에는 塑像은 圓筒을 사용하며 불화(畫幀)는 方筒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방형 후령통을 사용하는 대신 불화의 상축 홈이 후령통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례는 기존 학계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불화 복장의 새로운 예이다.

불교의식집을 통해 현왕에 대한 예경 절차를 수록한 現王講에서 시왕신앙으로부터 현왕신앙이 독립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의례의 변화가 예불 공간에 변화를 불러오고 새로운 불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함을 입증하였다. 현왕청(성왕청)은 현왕에 대한 예경 절차를 수록한 의식문으로, 1574년에 간행된 불교의식집, 『勸供諸般文』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현왕청은 ‘제 삼일 聖王齋’를 통해 세상을 떠난 영혼이 삼업에서 벗어나 정토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친다. 의식의 주준은 명부의 세계에서 영혼을 구제하는 보현왕여래이며 그를 보필하는 대문성왕과 전문성왕이 청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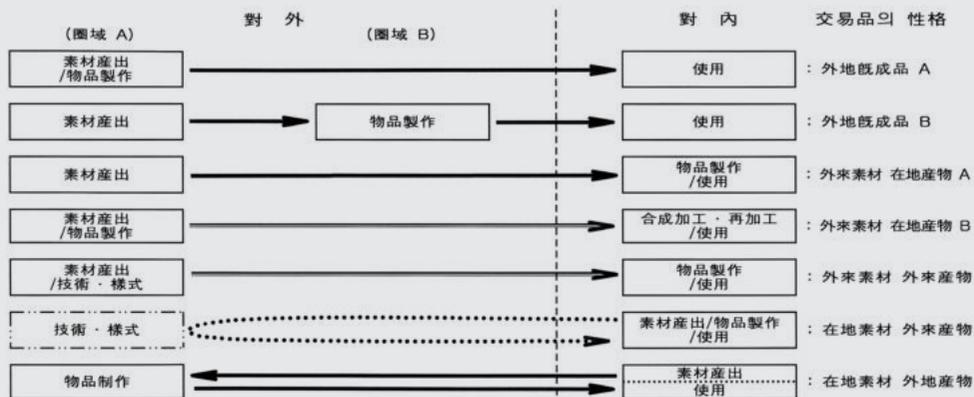
현왕재가 망자의 사후 삼일에 영가를 구제하는 의식이며 특히 ‘삼일재’였음이 주목된다. 삼일재는 불교적 내세관에서 볼 때 다소 낯선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7일째 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열 번의 심판을 받고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년에 걸친 심판 없이 삼일 만에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신속한 구제에 대한 신앙으로 현왕재는 독립된 의식으로 인기를 누렸다. 명부전의 신앙 의례와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불화에 대한 수요가 현왕도 조성의 구체적인 이유이다. 본 논문은 불화의 기능이 당시 사찰에서 진행되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예배자들의 신앙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신앙 의례의 관점에서 불화의 기능을 고찰하는 것은 형식적, 양식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존의 미술사적 방법론을 확장한 새로운 시도로, 전통 사회에 있어 불교회화의 기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新羅 麻立干時期에 移入된 中央아시아 및 西아시아의 文物

글 함순섭 _ 국립대구박물관 관장

신라는 '황금의 나라', '국제성을 지닌 나라'라고 흔히 말한다. 이러한 신라의 이미지는 문헌기록에 따르면 대체로 통일신라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비되는 물질자료는 신라 마립간시기(356년~514년)에 조영된 적석목곽분에서 주로 출토된다. 문헌기록과 물질자료의 상이성에 대한 설명은 앞선 마립간시기부터의 전통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이며 즉물적인 인식이다. 즉 해당 시기의 기술 수준 및 국제 정세와 현대 고고학에서 다루어지는 대외교역 이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설명인 것이다.



자원의 순환과정과 교역품의 상관도

이 논문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대외교섭 체계를 염두에 두고, 신라 마립간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문물을 해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대외교역품의 분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 제작된 외지기성품을 선별하였다. 제작기법과 성분에서 분명한 것만을

외지기성품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제작기법의 유사성만으로 폭 넓게 대외 교역물품을 설정하던 기왕의 인식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외지기성품은 소재 및 기술유형에서 재지계통과 분리된 물품만을 지칭하였다.



01 서아시아 유리구슬 (①금관총 ②황남대총 북분 ③ 미추왕릉지구 C-4호 무덤)
 02 신라의 중앙 및 서아시아 유리그릇
 03 신라의 중국 중원산 유리그릇

01

그 결과 신라 마립간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물품은 유리제품과 금공제품에서 분별되었다. 몇몇 유리구슬과 유리그릇이 있고, 金製嵌玉 팔찌와 金裝嵌玉短劍도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로마영역을 포함한 서아시아 계통은 금박·다채색·모자이크 유리구슬, 시리아-팔레스타인 권역에서 유행한 덧띠를 대는 제작기법으로 만든 유리그릇(02-①~⑦), 사산조 페르시아의 커트글라스(02-⑧), 틀에 넣어 찍거나(02-⑨) 마블 무늬를 만든(02-⑩) 후기 로만글라스가 있다. 산지를 분명히 특정할 수 없으나 실크로드 권역에서 제작된 斑點紋 유리그릇(02-⑪)도 외지기성품으로 보았다. 또한 무늬가 없는 유리그릇은 그간 계통을 확정짓지 못하였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출토된 자료와 北魏에서 5세기 전반에 유리그릇을 만들었다는 문헌기록으로 볼 때 중국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금공제품은 신라에서 유행하지 않은 감옥기술이 쓰인 금제감옥 팔찌(04)와 금장감옥단검(05)만을 외지기성품으로 보았다. 이 금공제품들은 흑해연안 및 서아시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넓은 권역에서 유행한 것이다.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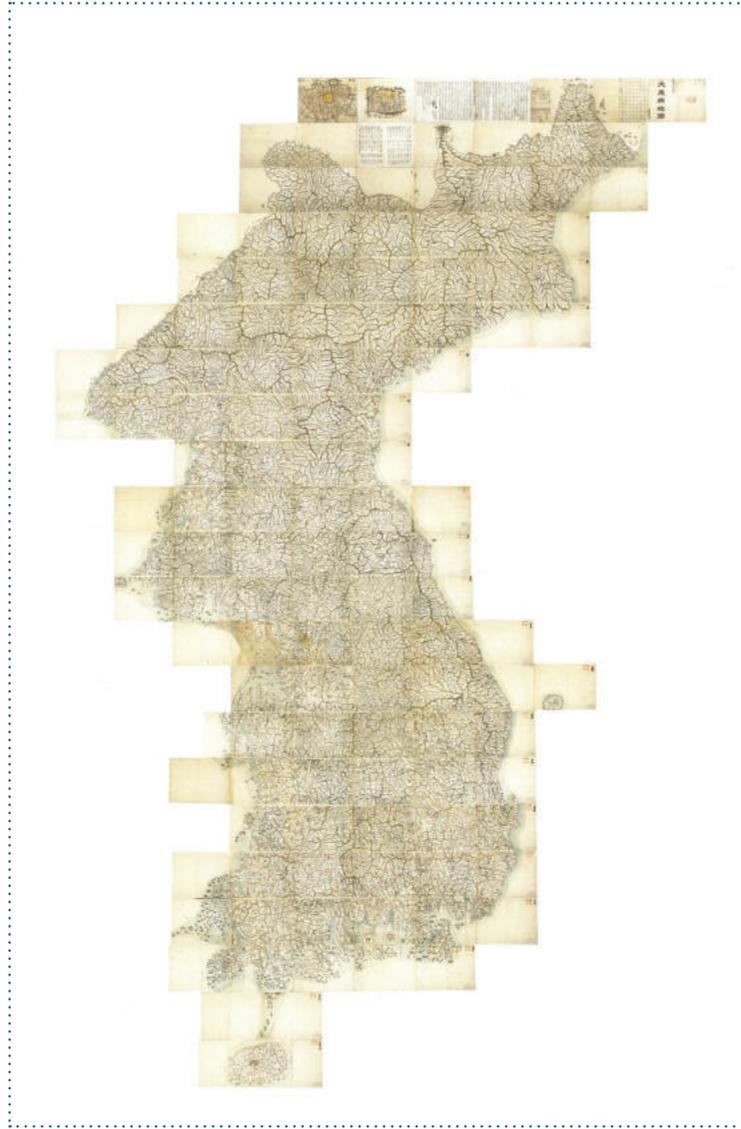


신라 마립간시기의 외래기성품은 매우 다양한 계통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를 두고 신라가 다양한 권역과 직접 교류하였던 결과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역설적으로 계통의 다양성은 오히려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심 권역에 집하된 외래문물이 일관된 교역체계를 통해 주변 권역으로 다시 유통되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따라서 漢代 이후에 중국 중원은 동북아시아의 전역을 아우르는 대외교섭의 중심이었으므로, 마땅히 교역물품을 집하하는 중심지이었을 것이다. 신라 마립간시기의 중앙 아시아 및 서아시아 문물은 중국 중원과 대외교섭을 통해 2차적으로 이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라 마립간시기는 위세경제(prestige economy)가 체계화된 때였는데, 이 시기의 외래문물은 왕경에 집중 분포한다. 이를 통해 신라 왕경과 복속된 地域小國 사이에는 위세경제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외래기성품은 王京人에게만 집중시킨 최상위 위세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신라의 중앙 및 서아시아 금공제품

04 황남대총 북분 출토

05 계림로 14호 무덤 출토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 기념 테마전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씩 22층으로 구분하여 한 층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총 22권에 담은 대동여지도. 이를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전국지도가 된다. 벽에 펼쳐진 지도의 곳곳을 짚어보니 그 상세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실시간으로 위성지도를 전송받는 지금, 김정호의 집념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업적은 크나큰 울림이 되어 우리를 감동시킨다.

국립중앙박물관 기부함 설치 및 기부금 모금

우리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 기부함 설치 및 제막식을 하였다. 모금된 기부금은 국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소외된 이웃의 문화나눔과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화 ARS 060-700-1030으로도 모금하고 있으며 1통화당 2,000원이다.

기부방법

현 장 기 부 : 박물관 으뜸홀에 기부함 비치

온라인기부 : 농협 301-0065-5511-41 (사)국립중앙박물관회

ARS기부 : 060-700-1030(1통화당 2000원)



2011년도 제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우리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2011년도 제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논문을 선정하였다. 학술상은 2010년도에 발표한 국립박물관 직원의 연구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이번 학술상에는 총 20여편의 논문이 응모되었고 관련학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천마상이 선정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천마상 1편을 비롯하여 금관상 2편, 은관상 1편이 선정되었다.

천 마 상 / 서일본지역에 있어서 湧別기법 계통(恩原假説 중심으로) - 장용준(중앙박물관)

금 관 상 / 부여 구봉리 유적 출토 사에 대한 고찰(鎚의 用途 究明) - 윤태영(김해박물관)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 - 진정환(전주박물관)

은 관 상 / 정조의 생생자 정리자 제작과 중국 활자 구입 - 이재정(중앙박물관)

심사위원 / 한창균, 이강승, 정우택, 박은경, 김성구, 권오영, 박신의, 전태일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金正泰
理 事 | 崔光植 金寧慈 金信韓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경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하나은행 金正泰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輝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대표
成弼鎬 광성기업대표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부회장
柳方熙 (주)풍산주택회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庚園 광계사 주지
南秀淨 (주)선앳푸드 대표
許榕秀 (주)GS홀딩스 전무
朴殷寬 (주)시몬드 회장

청자회원

卞炯泰 갤러리현대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鄭容鎭 신세계 부회장
최철원 M&M(주) 사장
洪政旭 국회의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우재단 이사장
李明姬 대성산업 전무
金信韓 효성그룹 전무
趙顯相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부사장
李宇鉉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변호사
金榮秀 호성공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愼昌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淑 제일회계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金南延
金寧慈
金正宙
梁汰會
尹在倫
丁恩美
鄭義宣
崔惠玉
洪錫肇
洪誠杓
崔世勳
金承謙
朴世昌
崔杜準
李海珍
金澤辰
李善眞
洋賢棋團

薛允碩
李英純
朴正遠
李教祥
金載烈
金仁順
梁洪碩
朴禎原
朴煥原
曹在顯
曹榮美
金世淵
金兌炫

Bae

Joseph 具本商
朴善正
金裕錫
咸泳俊
金載勳
高基瑛
尹賢慶
韓榮宰
崔仁善
吳勝敏
許允秀
俞承燾
李宰旭
李萬圭
趙希卿
朴宣注
尹寬
李蓮花
林鍾勳
柳智勳
李濬宇
양인집
尹勝鉉
吳治勳
李學俊
李芝衡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회계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서양화가
柳敬浩
(주)화승 부회장
동훈디앤아이 대표
(재)예을 이사장
(주)NX 대표이사
(주)비상교육 대표
서울대학교 교수
종로필입아카데미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보광웨리마켓 회장
고려상사(주) 부회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주)서릉통상 전무
금호타이어 전무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NHN(주) 이사회위원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목금토갤러리 관장

대한전선 부사장
한국미술협회회원
재미교포
서울기든호텔 부사장
제일모직 사장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대신증권(주)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
두산중공업 사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주)KPE 전무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성신양회(주) 부사장
KKR Asia 대표
(주)LIG홀딩스 대표이사
GLMI 대표
행남자기 전무
(주)오뚜기 회장
영풍제약 부사장
(주)금비 사장
동화약품 차장
노루홀딩스 회장
회원

동일산업(주) 전무
(주)알토라이팅 부사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부관장
(주)대주기공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광주요그룹 이사
영은미술관장
BlueRun Ventures 대표
경신금융 감사
한미약품 상무이사
영남제분 부사장
홍아해운 상무
진로제팬 대표
조명디자이너 대표
대한제강 부사장
서울옥션 대표
변호사

책을 만들면서..

후원 누정에 누워 오수에 젖었는데...

꽃가마를 타고 가던 공주가

꽃잎 하나 놓고 가네.(水)

머칠 눈병으로 고생했다.

아프기 전 내 정신세계에는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다.(河)

총총총... 총총총...

코앞에 두고 세바퀴나 돌았다.

작은 전시 위한 작은 안내관 하나

마련해 주는 센스!!(愛)

안개가 새벽공기를 감싸 안으면

한낮은 뜨거움으로 달아오르고

책 몇권 챙겨 들고 정자에 누워

이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리)

때 이른 무더위에 뒤척이다

달빛을 따라 마당으로 나온다.

여름 달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눈이 시리지 않아 좋다.(정)

취규정 마루에 앉아 책장을 넘길 제,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마마, 어디 계시옵니까?"(藝)

어느 쪽으로 가야할까.

엔터키가 필요하다.(延)

****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1년 6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최여정·하영남

진행 | 서승연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